



소명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¹⁾ : 오스 기니스²⁾와의 대화

커크 웹 (Kirk Webb)³⁾

김종철 옮김⁴⁾

커크 웹: 당신은 통찰력 있는 문화 분석가로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당신의 책 [소명]을 보면, 새로운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오스 기니스: '소명'은 나에게 지난 30년 동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또한 이제 나는 무엇인가 건설적인 일들--단순한 문화 비평뿐 아니라 복음이 가진 핵심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일들--로 방향을 트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 돌아온 60년대 초, 그분을 알아 가는 기쁨이 나를 사로잡았지만 마음 한 곳에서는 “왜 현대 사회에서는 믿음이 감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너무나 하찮게 취급되는가”하는 문제가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믿음이 역동적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절을 살펴보고 그것의 동인(動因)이 된 진리가 무엇인지 연구하였습니다.

연구를 거듭해 갈수록 그 동인으로 보여지는 두, 세 가지의 진리가 계속해서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역사의 발전--시대 산에서의 유대 민족의 형성, 갈릴리 지방에서의 기독교 운동, 17세기의 종교개혁, 기독교 신앙에 의한 근대적 세계의 형성, 청교도 운동 등--뒤에는 언제나 '소명'이라는 진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소명'의 개념이 혼동되고 왜곡되어진 오늘날,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소명관'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과 영향력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웹: 왜곡이라면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기니스: 첫 번째 왜곡은 내가 '구교적(舊教的) 왜곡'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성스러운/세속적인, 높은/낮은 이라는 구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의 기원은 에우스비우스같은 사람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 그는 이 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한' 그리스도인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과 ‘용인된’그리스도인이라는 두 부류로 구분했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신부, 수녀 그리고 제사장과 같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용인된 그리스도인’이란 군인, 농부, 상인과 같이 ‘평범한 일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왜곡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영적인 계급 같은 것을 낳았습니다. 어거스틴과 아퀴나스를 비롯한 많은 교부들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왜곡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뿌리깊게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말이죠! 그것은 “전임(專任) 사역”과 같은 말들이 우리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곡은 내가 ‘신교적(新教的) 왜곡’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소명’에 대한 영적 개념화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소명’을 직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했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이는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 직업과 일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직업’, 즉 사람들이 하는 ‘일’이 ‘소명’이라는 말과 실질적인 동의어가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산업혁명이 한창일 때, 직업은 신성화된 반면, ‘소명’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세속화되었습니다. 신교적 왜곡도 그 방향만 반대일 뿐이지 구교적 왜곡만큼이나 해악이 큼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왜곡을 극복할 수 있는 균형을 찾아보려고 애써왔습니다. 우리에게서 주님께 의한, 주님을 위한, 주님께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소명입니다. 이 부르심은 무엇(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가르치는 일, 정치하는 일)으로의 부르심, 어디(법조계, 캠퍼스, 아프리카)로의 부르심에 앞선 누구(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근본적인 소명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수적인 소명입니다. 내가 소명을 근본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으로 나누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순서를 뒤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본적인 것은 언제나 부수적인 것 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점에서 모두 실패하였고 그것이 바로 내가 앞에서 말한 왜곡의 두 형태입니다.

웹: 많은 사람들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고들 합니다. 중년의 위기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자신의 직업 혹은 소명이나 가치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위기의식을 가진다는 사실은 어떠한 영적, 심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니스: 많은 이들이 가지는 중년의 위기는 ‘소명’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을 선택했던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뭔가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에 그 일과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맞는가를 고려하기보다, 얼마나 돈을 벌 수 있고 얼마나 유망하냐에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4·50대에는 자기에게 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꼴은 못

보겠단"라든지 "이 일은 정말 내일이 아냐"라고 투덜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점에 있어서는 이러한 위기의식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자신이 어떻게 했어야 했나를 진지하게 살펴볼 수 만 있다면, 그러한 위기의식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이 무엇이고, 소명이 무엇인가를 살펴 직업을 선택해야만 했었습니다. 돈이나 성공, 명성과 같은 것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한다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기 마련입니다.

웹: 교회 역시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자신의 재능을 바로 발견하도록 잘 도와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니스: 교회가 '구교적 왜곡'을 받아들여 목사나 선교사 같은 일들을 영적으로 더 높게 취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신교적 왜곡'에 영적, 종교적 포장을 씌워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전략적인 직업 혹은 전략적인 소명' 같은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자신들이 마치 '소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듯이 말이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범조계로 진출해야한다" 혹은 "우리는 모두 미전도 종족에게로 가야한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들입니다. 우리 각자는 "나를 지으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어진 재능은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하는가?"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나의 재능과 소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진지하게 씨름하지 못하게 하는 영터리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 무엇인지 찾게 해주는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 오고는 있지만, 그것들의 대부분은 교회에 봉사하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즉 교회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재능을 발견하게 해준 뒤 곧 바로 교회에서 필요한 여러 일들을 시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할 일은 사람들의 영적인 재능뿐 아니라 자연적인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의도하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웹: 영적인 재능과 자연적인 재능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니스: 영적인 재능은 '제도로서의 교회'의 사역을 위한 재능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재능을 그렇게 협소하게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재능을 '제도로서의 교회' 뿐 아니라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관련해서도 보아야 합니다.

한번은 워싱턴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날은 마침 '소명 확인 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하신 소명에 관한 설교는 내가 이제껏 들어본 것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끝난 후 목사님은 "내가 여러분의 소명을 하나씩 부를테니, 자기 소명이 호명(呼名)되면 일어나십시오. 그럼 예배 후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가 말하고 있는 소명이라는 것이 전부 '제도로서의 교회'와 관계되는 것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는 매우 잘 알려진 언론인 몇 명이 다니고 있었지만, 그 예배가 끝나도록 그들에게 일어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재능은 '제도로서의 교회'에서는 그리 쓸모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능으로 취급받지 못하였던 거죠. 이 모든 것이 신학적인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웹: 당신이 말한 오류란 교회가 사람들의 재능을 단지 '제도적인 교회'와의 관련 속에서만 보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니스: 네. 교회는 사람들의 재능과 소명을 바로 알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소명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웹: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교회가 이원론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기니스: 안타깝게도 그게 사실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의 교황이 개신교보다 더 종교 개혁 정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개신교도들이 루터가 배척한 구교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교가 우리보다 하나님의 소명이나 일에 대해 더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자들이나 뉴 에이지 운동가들조차도 '소명'이라는 말을 가지고 일의 존귀함을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메를린 퍼거슨과 같은 작가들도 자신의 책에서 '소명과 일'이라는 주제로 한 장(章)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의 존귀함이 상실된 오늘날, 우리는 '소명'이라는 개념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도 알고 있듯이, "부르는 자가 없는데, 부르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소명을 완전히 뉴 에이지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토마스 무어에게도 나타납니다. 이처럼 소명에 관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 의해 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그들이 소명의 올바른 의미를 모르긴 하지만 말입니다.

웹: 사회도 뉴 에이지 주장처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그러치 않은 것 같은데요.

기니스: 청교도 운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육체 노동의 존귀함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17세기의 유명한 설교가인 존 코튼의 초기 글들을 이러한 사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작은 일은 그냥 작은 일이지만, 주께 하듯이 하면 큰 일이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조지 허버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소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찮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에서도 중요성과 거룩함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품었던 ‘소명’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잊고 있었던 ‘소명’에 대한 종교개혁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진보 진영이건, 보수진영이건 마찬가지입니다. WCC는 ‘책임 있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뉴트 킹그리치를 비롯한 공화당원들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미국과의 계약]에서 ‘개인 책임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책임에 대해서 한마디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모든 덕(德)이 상실되었다는 주장 속에서도, ‘책임’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덕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9세기 전까지 만해도 ‘책임’은 덕으로 여겨지기 보다는 하나의 당연한 전제요, 기초 개념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이처럼 ‘책임’이 덕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의미도 바뀌었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이 “누구에 대한 또는 무엇에 대한 책임”에서 “누구를 위한 또는 무엇을 위한 책임”으로 그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 현대인의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몸을 위한 책임이 있고 환경보전을 위한 책임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한 책임이 있지만, 누구에 대한 또는 무엇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인 responsibility--‘응답하다’인 response와 ‘할 수 있는’의 able 그리고 ‘명사형 접미사’인 ity로 이루어져 있는--를 살펴보면, 우리는 책임이라는 말이 누구에 대한 책임일 뿐 아니라 그 말이 어원적으로 부르심이라는 말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책임은 누구에 대한 또는 무엇에 대한 책임이며, 우리는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응답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는 책임은 누구에 혹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의 사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들 합니다. 잡지로부터 시작해서 심리학까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 것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흡족한 대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막스주의자들은 인간을 계급이라는 범주로, 페미니스트들은 성(性)이라는 범주로, 어떤 사람들은 인종이라는 범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즉 여러 가지 범주를 나눈 뒤, 인간을 그 범주에 ‘귀속(歸屬)된 존재’로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류층에 속한 백인 남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 입장의 문제점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이 범주라는 일반적 것에 함몰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입장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인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첫 번째 것과는 상반되는 두 번째 입장은 인간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존재’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운명의 주인은 바로 너다”라는 말은 이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이 입장을 신뢰해서 계속 살아갈 정도로 우리가 강하고 슬기롭고 부(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대부분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뉴 에이지 운동가들, 특히 토마스 무어의 친구인 제임스 힐만이 주장하는 입장은 인간을 ‘운명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팔자에 의해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입장이 취하고 있는 ‘미리 결정되어졌다’는 사상 자체가 이 입장의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이 각각의 입장은 어느 정도 부분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무한하시지만 인격적이신 부르시는 자(하나님)는 우리 각자--유일하고 귀하며 개성이 서로 다르며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를 부르셔서 교제 가운데 이끄시고 어떠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분은 우리를 이끄셔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분의 응답에 반응하지 않거나 거부하지 않는 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거나 고착된 것이 아닙니다. 씨 에스 루이스는 “우리가 자신의 ‘자아’라고 부르는 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맡길 수록, 우리는 더욱 참된 ‘자아’를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웹: 당신은 이제까지 해온 문화 비평 작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기니스: 나는 복음을 우리 세대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일을 나의 소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변증학의 영역이죠. 하지만 세상을 교회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또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 분석 내지는 문화 비평인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의 표지가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적으로 분석하고 비평하는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웹: 과거 라브리에서의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그 때의 경험들이 당신이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칩니까?

기니스: 나는 프란시스 웨퍼에게 상당한 빛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일하는 스타일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너무 간략한 설명일지는 몰라도, 웨퍼의 비밀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진리에 대한 놀라운 열정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모든 진리는 나에게서 선혈이 낭자한 진리다”라고 말한 니체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웨퍼는 하나님, 사람 그리고 진리를 매우 진지하게 여겼고, 그것이 내가 웨퍼에게 얻은 커다란 자산입니다.

악(惡)에 대한 나의 이해도 그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한 라브리에서 나는 사회의 구조나 제도가 삶의 방식과 사고에 영향을 주는 것만큼이나 사상(思想) 역시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웹: 60년대를 분석한 당신의 책인 [제 3의 종족]이 요즘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기니스: 이상한 일은 사람들이 60년대를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시대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60년대는 아마도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60년대를 살펴봐야 합니다.

웹: 복음 변증의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기니스: 거시적으로는, 과거의 “모든 길은 진리로 향한다”라든지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라는 주장 대신 “차이는 차이를 낳는다”, “차이는 실재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유교, 기독교, 이슬람 사상 사이의 확연한 차이들을 사람들은 자각하고 있습니다.

미시적으로는, 요즘 포스트모더니즘이 유행하고는 있지만, 너무나 부정적이고 해체적이어서 사람들이 이 사상을 자신의 철학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필연적으로 순간적인 현상을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체적인 사상을 기초로 해서 어떤 문화도 계속 지탱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선 대답을 찾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건대, 이 시대는 사회의 여러 영역-대학이건, 정치이건, 기업이건 간에--이 새로운 진리와 대답을 갈구하는 열린 분위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복음에 대한 강력한 대항 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 시점이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 역사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호기(好機)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변증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 뜻조차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변증학은 신학교의 교실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 되어, 진짜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쓸모가 없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웹: 복음이 포스트모더니즘 논의 안에서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니스: 네. 나는 복음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의 안과 밖 모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 모두 어느 면에서는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기회이며, 다른 면에서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모더니스트들은 기독교를 비(非)진리이고 터무니없는 신앙으로 여기지만 진리의 확실성을 믿고 진리와 이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측면에서는 우호적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태도는 “출신 성분을 묻지 않는다”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입장이 동등하게 평가받고 논의될 수 있는데, 이점은 우리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극단적인 상대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서 결국에 가서는 모든 입장을 부정하고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건전한 변증학은 어느 상황에서건 살아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함과 창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극단적으로 평가하여 위협하게 여기거나 너무 환영하는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웹: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의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십니까?

기니스: 포스트모더니즘은 포스트모더니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우리가 후기 모더니티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붕괴 이후에 나온 사상 체계입니다. 모더니즘을 계몽주의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계몽주의의 기획’을 담고 있는 사상 체계라고 볼 때, 모더니즘은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더니티는 단순한 사상 체계가 아니라 자본주의, 산업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같은 사회 구조적 혁명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더니즘--진리, 이성, 진보 그리고 과학에 대한 믿음--은 붕괴했지만 모더니티는 지금 그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모더니티의 전성기에 번창하고 있는 사상 체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모더니티와 모더니즘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모더니티의 손아귀에서 우리는 드디어 벗어났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모더니티의 도전은 그 어느 때 보다 강합니다. 주님의 재림이나 핵전쟁으로 인한 폐허 이외에 모더니티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티의 상황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웹: 그렇다면 당신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쇠퇴하리라고 보십니까?

기니스: 나는 그리 오래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본질이 해체적이고 반(反)철학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해서 오랫동안 가정을 꾸미고, 나라를 다스리고, 대학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만약 당신이 오늘날 대학에 가서 어떤 것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원시인이나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니체의 사상을 따라 “진리는 이미 죽었고 이제 힘이 지식을 만들어 낸다”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즉 사람들이 일정한 사실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말로 진리이어서가 아니라 그 주장을 통해 힘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힘의 추구가 모든 것의 원동력인 셈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만일 “진리는 죽었고 힘이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조작 뿐입니다. 개인이건 사회이건 이런 사상을 가지고는 계속 유지되기 힘듭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지금은 대통령이 된 바츨라프 하벨이 행한 체코 혁명에서의 활약에 대해 경탄합니까? 하벨이 내세운 혁명의 구호는 “진리는 승리한다, 진리를 따르라”였습니다. 매우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하벨은 거짓말을 기초로 세워진, 소련 체제에 대항하여 싸워 이기는 길은 오직 두 가지 뿐이라고 하면서, 하나는 더 강한 힘을 가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하벨의 그러한 선택을 경탄해 마지않는 수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정작 진리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존재한다”는 기독교의 주장은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는 아주 황당한 말로 들리겠지만, 두고 보십시오. 조만간 비장의 카드가 될 것입니다. 나는 곧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웹: 끝이요?

기니스: 네. 그 발달된 과학 기술과 독재체제를 가진 막시즘도 74년밖에 지속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기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한 기간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도 내 생각에는 10년을 못 버티리라고 봅니다.

웹: 그렇다면 요즘 교회가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해서 복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잘못된 것인가요?

기니스: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복음은 어느 상황에서건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상황과 관련해서 복음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상황화(狀況化)는 새로운 시대가 오면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라이어마허 이후 200년 동안 자유주의자들이 범했던 잘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주의 내에서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웹: 당신의 말을 들으니 교회는 상황화와 고립화라는 양극단을 시계추와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니스: 아직도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고 고립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라고 여기는 무리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겁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있되 속하지는 말라”는 기준에 비추어, 자유주의자들은 너무 많이 세상에 들어갔고, 보수주의자들은 너무 조금 들어갔다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와 관련해서 이제 그러한 평가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세상에서 더 이상 도피할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대 과학 기술로 인해 우리가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숨어 들어갈 절충성은 없습니다.

1968년 내가 미국에서 처음 강연을 하면서 베르미만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베르미만에서 제발 멈춰주었으면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분별없이 아무 영화나 자녀들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70년대 초 옥스포드에 있을 때, 내 지도교수인 브라이언 월슨이 “복음주의자들은 70년대 말이 되면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학생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 혹은 근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세상을 부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의 말대로 복음주의자들은 가장 세속적인 집단이 되어있습니다.

웹: 당신의 말대로 포스트모더니즘이 그 수명을 다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찾아오리라고 예견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모더니티를 기초로 한 사상 체계이겠지만 말입니다.

기니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니까요.

웹: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에 올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분석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니스: 도전이 되는 말이군요. 사실, 우리 주님만이 때를 온전히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마치자마자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시대의 필요가 무엇이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를 책망하시기도 하셨지요. 따라서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함부로 단언하지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미래학은, 그것이 기독교적이건 아니건 간에, 현재의 흐름을 가지고 미래에 대입시킨 뒤 현란한 용어들로 그것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데카돌로지decadology--데카당스와 이데올로기의 합성어--니 엑스 세대니 하는 말들을 좀 보십시오. 조그만 자세히 살펴봐도, 그 말들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라는 부르심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대중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웹: 최근 몇몇 보수주의 교회들이 시대의 표지를 분별한다는 말에 반대하면서 시대를 창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니스: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나 집단이 시대를 바꾸고 형성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지나친 오만입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견고해 보이는 제도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힘과 지식을 과신하여 이 시대의 흐름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나폴레옹이나 시저 같은 한 사람에 의해 그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날은 상황이 다릅니다.

웹: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 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니스: 70년대 초 라브리를 떠나면서, 나는 앞으로 써야겠다고 결심한 25가지 책 제목을 일기장 앞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중 아직 11 권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 계속 쓸 작정입니다. 내가 제일 쓰고 싶은 책은 기독교 변증에 관한 책입니다. 이미 변증학에 대해서 나는 1권의 책을 낸 바가 있지만, 이제는 매우 실제적인 관점에서 변증학을 다루고 싶습니다. 비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로 복음을 설명해주는 그런 책 말입니다.

- 1) 이 글은 마르스 힐 리뷰 Mars Hill Review 1997년 제8호에서 다룬 "Calling, Postmodernism, and Chastened Liberals: A Conversation with Os Guinness"를 번역한 것이다.
- 2) 기독교 변증가이며 문화분석가인 오스 기니스Os Guinness는 [무덤파기 작전](낮은 울타리 역간), [제 3의 종족](신원 출판사 역간), [두 마음](예찬사 역간)을 비롯한 10권의 책을 낸 바 있는데, 최근에는 [소명]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에서 태어난 그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하였다. 한 때 스위스 라브리에서 프란시스 쉐퍼와 함께 일하면서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의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그는 지금 트리니티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고전(古典)에의 초대'라는 책을 준비중에 있다.
- 3) 웨스턴 시애틀 신학교에서 상담학과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웹은 마르스 힐 리뷰의 편집 위원이기도 하다.
- 4) 옹긴이의 말: 글을 옹기면서 calling이라는 동일한 말을 문맥에 따라 어느 곳에서는 '소명'으로 다른 곳에서는 '부르심'으로 번역했는데, 이는 '소명'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인 'calling'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부르다(call)라는 말, '교회(ecclesia)라는 말--그리스어인 에클레시아(ecclesia)는 '불러낸 자들(called-out ones)'의 의미이다--그리고 직업(vocation)이라는 말--직업에 해당하는 vocation도 'vocare부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온 것이다--을 연상케 하는 반면, 우리말 '소명'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재능'라는 말의 의미를 협소하게 파악하여 talent라는 동일한 말을 영(靈)적인 개념으로 쓸 때는 '재능'으로 자연적인 개념으로 쓸 때는 '재능'으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모두 '재능'으로 번역하였음을 밝혀둔다.